

이데올로기시대의 서적의 讀解와 教壇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 파문을 보며 생각하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

李光周

인제대 교수·서양사

얼마동안 연이어서 매스컴에 보도되고 사회에 적지 않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진주 경상대 교양과목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저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더니 검찰에 의해 공저자인 몇몇 교수가 다시 조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출판사 대표 및 그 교재를 판매한 서점 대표에 대해서까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리고 교양교재 물의의 책임을 지고 동대학의 총장이 사퇴하였다.

그간 검찰의 논고는 동서의 '이적성'에 관해 지적하고 있으며 그에 맞서 공동 집필자들은 처음부터 '학문의 자유'를 내걸고 무죄를 주장하여 왔다. 「한국사회의 이해」를 둘러싼 문제는 필자로 하여 학문의 자유와 이데올로기 문제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교단에서의 '가르치는 자유' 및 서적 '독해'의 행태에 관한 문제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학문의 자유와 知的 '엄직성'

먼저 '학문의 자유'에 관해 생각해 보자. '학문적 자유'라는 생각은, 유럽 중세 대학의 논리적이면서 논쟁적인 학습의 내용(문법·변론·논리 등 三科)과 그 방법과 관련되어 일어났다. 당시에는 강의도 대체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렇듯 학문과 교수 방법의 논리적·논쟁적 성격은 당연히 생각하는 자유, 논의하는 자유를 전제하여야 하였으니 17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할레 대학은 '철학하는 자유'를 지도이념으로 창건되어 논리적 증명 이 모든 학문인식의 근거로서 주장되었다. 이 '철학하는 자유'의 배경에는 당시의 각 종파에 의한 고질적인 종파주의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깔려 있었다.

'철학하는 자유'에 이어 괴팅겐 대학은 '가르치는 자유'를 주장하였으니 이제 학문과 가르침은 단순히 기존의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자유로이 사색하고 연구하며 그 결과를 강의해야 되었다. '가르치는 자유'의 사상은 자주적인 학습 방법인 세미나 형태의 학습 지도에서 잘 반영되었으니 지난날, 정해진 교과서에 의해 주석하는 식의 강의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상의 자유' '가르치는 자유'의 정착에는 뒤에서 언급하듯이 서적 문화의 발달에 힘입은 바 크다.

그간 유럽 대학에 있어 신학부는, 이단에

대한 고발을 전통적으로 행하여 왔거니와 교수의 강의나 저작에 대한 검열도 그의 권한으로 행사하여 왔다. 그러나 괴팅겐 대학의 '가르치는 자유'는 신학부의 그러한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폐지를 관철하였다. 당시 철학부의 한 교수가 정부로부터 무신론자라는 낙인이 찍혀 강의 금지를 통고받았을 때, 신학부 스스로가 그에 강경하게 맞서서 '가르치는 자유'의 기틀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은 학문의 자유의 역사에 있어 획기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학문의 자유'(akademische Freiheit)의 이념이 명확한 개념으로, 학문적 공동체인 대학의 지도이념으로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 특히 베를린 대학의 창립(1810)을 기해서였다.

독일 이상주의 철학과 인문주의의 학문관과 문화관 그리고 국가관을 반영한 '학문의 자유'의 이념은 학문 연구와 그에 종사하는 교수와 학생의 자율성, 특히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각별히 강조하였다.

근대 대학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내세우는 '학문의 자유' 내지 '대학의 자유'의 이념은 대체로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베를린 대학의 모델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학문 연구와 그에 종사하는 학자가 자유로워져야 함은, 표현의 자유가 예술가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과 똑같이 당연하다. 국가 안전이나 사회질서(윤리)니 하는 명분 아래 국가권력이나 종파가 간섭하거나 더욱이 斷罪함은 바로 국가나 종파의 월권이라고 할 것이다. 막스 베버는 '학문의 자유'의 이념을 받들어 '무전제의 학문' 즉 학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제없는' 자유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의 무전제에는 하나의 전제가 불가결한 것으로 전제되었다. 그것은 곧 학문하는 자의 '금욕'이다. 그에 의하면 교사는 지도자가 아니다. 교사는 자기의 주관적 평가나 세계관을 교단에서 학생에게 강조해서는 안된다. 교사는 "교단 위에서 듣는 사람을 향해 무엇인가 어떤 입장을—명백하건 암시적이건—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교사는 어떠한 이념이나 주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학문」과 그밖의 대학론 내지 학문관에 관한 그의 여러 저술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은 베버의 주장은 '가치의 자유(Weltfreiheit)'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었거니와

얼마전 경상대의 교양과목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크게 사회문제가 됐다. 검찰의 논고는 이 책의 '이적성'을 지적하였고, 공동집필자들은 처음부터 '학문의 자유'를 내걸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필자로 하여금 '학문의 자유와 이데올로기 문제',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교단에서의 '가르치는 자유' 및 서적 '독해'의 행태에 관해 새삼 생각해 보게 했다.

베버가 바라는 대로 과연 학문하는 자는 이념 내지 그의 주관에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주관과 관계하지 않는 객관성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아무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필경 역사가의 주관이 개재되게 마련인듯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베버 자신도 단지 사실에만 관련되는 知的 '객관성'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버가 '지적 엄직'과 관련하여 이처럼 '객관성' '가치의 자유' 혹은 '무전제의 학문'을 교사에게 되풀이하여 요청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직업으로서의 학문」이 발표되었을 당시(1919)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의 지식 사회에서는 소비니즘적 민족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및 니체의 아류가 바야흐로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현대 산업 사회가 낳은 대중 민주주의의 해악으로서 그 데마고그적인 특성을 심각하게 두려워한 바 있는 베버는, 마르크스주의의 유행이 필경 대학 안으로 이데올로기의 선동자를 불러들여 오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씻어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베버는 학생시절 역사가 트라이취케의 반유태주의적인 강의에 학생들이 "열광적인 환성"을 나타내는 한심스러운 체험을 한 바 있었다. "예언자나 선동자는 대학의 교단에 서서는 안된다"는 베버의 정당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 발상은 점차 대학을 침범하고 있었다. 러시아 혁명은 세계 여러 지역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지식인들과 민중의 등장을 초래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태동되었다. 마르크스주의는 그 방법론과 실천적 인식의 논리로 하여 학문 연구와 知的 지평을 넓히는 데 획기적인 기능을 다하였다. 그러나 한편 마르크주의와 더불어 知的 이데올로기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연히 나타났음을 우리들은 부인할 수 없다.

대학이란 모든 사상이, 모든 사고 방식이 자유로이 논의되고 검증되는 '諸神들의 투기장'(베버)이다. 여기에서는 學藝의 어느 '神'도 배제되어서는 안되며 또 어느 '神'도 '先取權'을 지니지 못한다.

이데올로기 시대의 서적의 '讀解'

부르크하르트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세계의 역사를 돌로, 그것이 간행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놓았다고 하였거니와 「사회계약론」에서 주장된 '인민주권'의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 갈등의 시대를 출현시켰으니 그것은 민중 이데올로기가 물고온 파위 집단의 다원화에 대응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운운하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특히 문자 언어에 조석으로 대하는 지식인은 그가 원하는 원치않은 이데올로기의 광장으로 들어서게 마련이다. 근대 소설은 사람을 사랑에 눈뜨게 하였다고 하거니와 우리들을 이데올로기의 광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크게 기능하는 것은 우리들을 둘러싼 현실 상황이라기보다도 문자·언어와 그것을 담은 서적이다.

플라톤은 "생명을 지니고 영혼을 지닌 이야기—말"을 예찬하였거니와 동서를 가리지 않고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이야기'가 지극히 소중한 여겨졌다. 이야기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마을과 마을을 맺어주는 중개자요 정보의 원천이었다. 말과 이야기의 전통사회에도 서적은 존재하였다. 그러나 당시 문자 언어는 가족 사이에서, 학당에서, 특히 수도원과 성당에서 되풀이 音讀되었다. 서적이 희귀하였던 시대에 있어 사람들은 전혀 같은 문장을 귀로 듣고 기억하고 인지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말과 이야기의 모델이 되고 典據가 되고 규범(코드)이 되는 서적은 신의 말과 나라의 규범을 담은 呪術적인 것으로써 그만큼 그것을 해독하는 자는 카리스마적 권위를 지니 畏怖의 대상이 되었다.

'말'과 '이야기'는 單義의이며 그러므로 그것이 지배한 시대는 단일 이데올로기의 시대

요, 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자는, 유교적 전통사회나 오리엔트 세계 및 유럽 중세에서 드러나듯이 말의 전제로서의 문자 언어를 해독하고 서적을 관리하는 소수 학식자 집단이었다.

말과 이야기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갔다. 우선 9세기에서 11세기에 걸쳐 종래 음독에 의해 寫本을 작성한 수도사들의 습관이 점차 사라져갔다. 그에 이어 13세기에 이르러, 대학 사회에 默讀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중세대학은 도시를 요람으로서 탄생되었거니와 문자에 의한 계약으로써 말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도시 부르조아지의 요구가 대학의 성립을 크게 뒷받침하였던 것이다. 묵독의 습관은 14세기 중엽에 이르면 귀족층에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서적과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가 트인 계기가 된 것은 15세기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 발명이었다.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에 앞선 인쇄술의 발명이 없었던들 성공하지 못하였으리라고 하거니와 루터의 모든 언설과 호소가 재빨리 팜플렛으로서 독일 방방곡곡에 메아리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개혁 의지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되어 민중을 사로잡았으니 문자 언어에 의한 이데올로기 시대의 개막이요, 루터는 가히 1789년 혁명을 지적으로 준비한 18세기 계몽사상가나 볼셰비키 혁명을 쟁취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에 앞선 이데올로그라고 할 것이다.

문자 언어의 출판 문화는 '논의하는 公衆'(하버마스)을 낳았다. 그리고 이 공중은 사물을 무엇보다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언어로써 읽는 경향이 짙다. 서적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독해' 되는 예를 출판문화사가인 장-마리 구르모는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몰리에르의 「타르투프」가 파리에서 상연되었을 때 물의가 자자하였다. 그런데 그때의 비난은 미학적 내지 도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같은 작품이 1770년대 마드리드에서 상연되었을 때에는 정치적인 테모를 일으키게 하고 상연 금지의 화를 입었다. 절대 왕정에 대한 반감이 당시 공통 정서로서 깔려 있었던 것이다.

구르모는 또 한가지 예로서 그 자신의 교단 체험을 말하여 준다. 1967년 그가 소르본느의 조교로 있을 때 플로베르의 「감정교육」을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그때 그의 학생들은 그 작품을 한 청년과 성숙한 여인의 사랑의 이야

기로서 읽었다. 그런데 2년 뒤의 학생들은 그 작품의 주인공을, 혁명을 외면하고 풍테느브로의 숲을 여인과 함께 산책하는 반동적인 부르조아로 간주하였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도외시하고 작품을 정치적으로 읽었던 것이다. 2년뒤의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하여 나타난 것이었을까. 그 해답은 분명하다. 그간에 68년에 파리를 휩쓴 이른바 '스튜던트파워' 운동이 개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68년의 혁명적인 대소란(그것은 가히 혁명적이었다)에 참가하든 안하든,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학생들이 예외없이 똑같이 「감정교육」을 정치적으로 '독해'하였다는 사실이다.

'文體는 인간이다'라고 하지만 서적과 서적에 대한 '독해' 행태는 그 이상으로 사회성을 지닌다. '쓴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이 마음속의 생각을 문자로서 표현한다거나 혹은 '진리'를 언어로서 投射하는 것이 아니다. '쓴다'는 행위가 '말'과 다른 것은, 쓰는 사람에게 있어 세계는 '텍스트'로서 간주된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쓰는 사람에게 있어 세계는 마치 역사가에 있어 역사가 언제나 새로이 써야 하듯이,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우리들에 의해,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 의해 새로이 인식되고 씌어질, 끊임없이 수정되고 개정되어야 할 현실이다. 쓰는 행위의 이러한 의미는 서적 '독해' 행위에도 그대로 주어진다. 우리들은 未知의 상태에서 서적을 선택하고 읽지 않는다. '독해'는 문화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또한 사회적 의미를 생산한다. 진정한 독자는 서적과 함께 세계를 텍스트로서 읽거니와 그리하여 그의 앞엔 현실은 해체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플라톤과는 달리 데리다는 '쓰는 것의, 기쁨에 찬 방향'을 말한 바 있거니와 그에게 있어 '쓴다' 함은 그 본질에 있어 '텍스트를 짜내는 힘'을 의미하였다. 데리다와 더불어 발트, 푸코 및 라캉은 '나는 쓴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Seribe ergo sum)라는 원리에서 인간의 본원적 의미를 찾았거니와 그들에 의한 現出의 謀計와 전술에 앞장선 창조적인 저술가들—아베랄, 루터, 루소, 마르크스, 프로이드 등과 그리고 그들을 따라 혹은 그들을 쓰도록 만든, 그럼으로써 스스로 세계를 '텍스트'로 간주하는 術策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 즉 독자층을 우리들은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이해」 사건은 이땅의 대학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가 여전히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문제임을 새삼 일깨워 준다. 다른 사상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도 '제신들의 투기장'에 자리를 차지할 권리를 지니며 「자본론」이나 「공산당 선언」도 대학에서 연구되고 강의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바꾸어 말하여 마르크스주의자도 그가 마르크스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학과 강단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문제는 「공산당 선언」이 원래 독일 공산당의 강령으로 씌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강령으로서, 다시 말하여 행동의 지침서로서 대학에서 읽혀지고 강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지성의 본질이, 체제와의 애매한 기계적 의존 관계를 극복하는, 체제 비판적인, 그리고 때로는 '해방적'인 실천 이성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교수를 포함하여 지식인은, 그가 진정 지성적 인간이라면, 그 지식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패러다임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러나 강단에 선 교사에게는 일반 지식인의 경우와는 다른 이데올로기와의 '특별한' 관계 설정이, 그 자신의 '특수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입장도 검증하고 비판하는 知的인 '염직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교사는 논의하는 자지 행동하는 자가 아닐뿐더러 그는 학자로서 다름 아닌 '보편적인' 지를 지향하고 그리고 또한 교육자로서 그 '보편적인' 지에 학생을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학문하고 교육하는 교사의 책임이요 양심이다.

대학의 교단은, 일상적인 질서나 윤리 도덕을 비웃고 뒤집으며, 현실 세계의 악이 선으로, 선이 악으로 연출되고 共同幻想을 낳는 극장의 무대와는 다르다. 교사는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끝없는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 단순한 방관자도 단순한 배우가 되어서도 안되며 그는 학문하는 자의 본질로 하여 언제나 냉철한 비판자여야 한다. 비판자의 지위야말로 행동의 유혹이 도처에 깔린 오늘날 이데올로기 시대의 교사의 실천 이성이요 지적 '염직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간 좌파 이데올로기는 이 땅에 있어 감추어진 체제의 허위성을 드러내고 우리들로 하여금 '사회'에 눈뜨게 하는 데 크게 기능하였

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비합리적이며 당파적 情念으로 현실과 역사를 적지않이 왜곡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비합리적 편견은 모든 이데올로기에 불가피한 속성이라고 하지만, 혁명을 지향하는 좌파에 있어, 학문을 포함하여 지식은 '해방'을 위한 전략의 도구로서 기능하고 간주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우리의 대학은 지금 바람직한 '제신들의 투기장'—제이데올로기의 검증의 장으로 얼마만큼 기능하고 있는가. '민중-민중 해방'이라는 면죄부를 내걸고 행동의 情念에 매몰된 소수 학생의 존재. 이데올로그화한 그들이 한 주먹에 지나지 않다고 하나 학생의 집단심성을 만들어내고 동원하는 그 충격적인 영향력은 오늘날 검은 그림자를 대학에 드리우게 하고 있다. 오랜 군사 정권 지배 및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혐오는 그간 그 본질에 있어 이상주의적이며 모럴리스트인 학생들을 반체제의 저항집단으로 만들었거니와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좌파 이데올로기가 아니었던가. 젊은 지적 세대는 유토피안이다. 유토피안인 그들은 존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그리고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열망한다.

우리의 젊은 지적 세대를 좌파 이데올로기로 몰고간 데 있어 크게 작용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이즈러진 현실과 더불어 '지하 서적'에 친숙하여, 현대의 고전이라고도 할 E.H. 카의 한 역사학 서적까지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읽어 온 그들의 '독특한' 독해의 행태이다. 1968년 전후의 프랑스 학생과 다름없이, 유신 체제 이후 우리의 학생들은, 비정치적이며 비이데올로기적인 많은 학생들을 포함하여, 강의와 서적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독해'하는 버릇이 생겨났다. 독자의 세계와 서적 '독해'의 행태는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 소산이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의 '독해'의 방법론은 텍스트의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이데올로기적인 '독해'에는 이데올로기적 텍스트의 범람이 선행되었던 것이다.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가르치는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범당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어떠한 이데올로기로부터도 해방된, 학문을 지향하는 학구자의 엄격한 자세이다.